

관련성 이론에 의한 *Will/Would*의 양상성 분석

허광미*·이상철**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양상성의 개념
 - 2.2 선행연구
3. 관련성 이론과 발화미의 추론과정
 - 3.1 관련성의 정의
 - 3.2 관련성 이론의 기본 원리
 - 3.3 발화미의 추론
4. 관련성 이론에 의한 *will/would*의 의미분석
5. 결론

[국문초록]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화미의 해석은 맥락을 통한 추론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러한 추론과정은 학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의 인지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해 Sperber & Wilson(1986/1995)은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의 ‘인지적 원리’에서 ‘인간의 인지작용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련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제시한다. 즉 ‘관련성(relevance)’이라는 개념이 발화된 명시적 내용과 그 안에 함축된 내용을 파악하는 ‘의사소통적 원리’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관련성 이론과 관련성 이론을 통한 발화미추론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will, would*가 각 맥락에서 다양한 발화맥락의미로 파생되는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Will*은 대표적인 미래시제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이 ‘미래’의 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자의 주관적 또는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 양상 동사이기도 하다. 양상 동사의 ‘다의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의 모호성 혹은 중의성을 만드는데, 맥락에 의한 추론과정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찾는 인지작용으로 인해 해소된다. 관련성 이론을 통한 이러한 의미미결정문제의 해결 과정을 다의어인 *will, would*의 의미분석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 제1저자. 충남대학교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sclee@cnu.ac.kr

같이 구성된다. 서론 이후에 2장에서는 양상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will, would*의 의미와 관련된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Sperber&Wilson의 관련성 이론의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한 후 추론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will, would*가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는 예들을 살펴본 후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다.

주제어: 관련성 이론, 발화맥락의미, 인지적 원리, 의사소통적 원리, *will/would*, 양상성, 양상 동사

1. 서론

적절한 의사소통은 화자의 발화(utterance)가 전달하는 의미를 청자가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과정은 자연 언어가 가진 하나의 속성인 ‘다의성(polysemy)’으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의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닌 다의어이며, 상황에 따라 어휘가 전달하는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조동사 또한 하나의 형태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어휘 항목으로, 발화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 양상 동사(modal verbs)로도 불린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정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담고 있는 양상 동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조동사 *will*은 대표적 미래시제표현으로 알려져 있으며, 쓰임을 살펴보면 단순미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양상 동사로서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쓰임이 비교적 덜 한 편이다. 이는 다의어가 갖는 의미의 중의성(ambiguity)으로 인해 다양한 맥락 안에서의 의미의 미결정성(indeterminacy)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어휘구조의 특성상 다의어가 중의성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의미 미결정문제에 대해 여러 학자 등이 화용론적 추론과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will*을 단순 미래시제표현인 조동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Palmer(1986) 등이 제

시한 대로 양상 동사로 간주하여 미래 표현의 용법을 양상성의 하나로 분류할 것이며 또한 양상 동사 *will*의 의미 미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화용론적 추론과정은 Sperber and Wilson(1986/1995)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우선 2장에서는 양상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조동사 *will*을 양상 동사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관련성 이론의 주요 가정들과 원리가 소개된다. 4장에서는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will/would*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는 예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양상성의 개념

양상성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비슷하나 조금씩의 차이를 보여준다. Halliday(1970)는 화자가 발화행위를 통해 발화 내용에 화자 자신을 참여시키는 형식이 양상성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비평 또는 견해라고 정의한다. 반면 Saeed(1977)는 양상성은 의미적 범주이며, 화자가 발언한 명제에 대해 다양한 정도로 약속 또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여겼다. Palmer(1986)는 화자가 발화된 명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태도 또는 의견을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Quirk et al.(1985)의 경우에는 화자가 명제의 사실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내린 판단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tockwell(1977) 또한 양상성이 현실에서의 가능성이나 개연성 또는 필연성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화자가 명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것임을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Lyons(1977)는 서법성과 양상성을 구분하여, 서법성(mood)¹⁾의 경우 근본적으로 문법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며, 양상성은 일반적으로 의미적 항목(semantic term)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서법과 양상의 관계가 시제(tense)와 시간(time)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양상성을 화자가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에 관한 의견이나 태도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에 제시한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양상성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먼저, 명제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말한다. 이것은 문법 형태를 중심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시제나 상, 법 또는 부정, 의문 등의 문법범주들로 인해서 양상성이 표현되는 것을 일컫는다(Lyons, 1977). 둘째, 화자가 명제에 대해 지닌 견해나 태도 등이 화행(speech acts)이나 화자의 주관성 또는 현실과 관련하여 명제가 가지는 비사실성이나 비주장성 혹은 가능성과 필연성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Palmer, 1986).

종합해보면 양상성은 발화된 명제(proposition)와 화자가 지닌 현실 세계에 대한 배경지식, 이를 기반으로 한 화자의 명제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양상성이란 화자가 현실을 바탕으로 발화된 명제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또는 확실성을 가늠해보고, 문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의견, 태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상성은 어떤 언어적 수단을 통해 표현되는가? 양상성이 나타내는 의미는 다양한 만큼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명사(expectation, presumption, chance, hope 등), 형용사(possible, sure, imperative, obvious, doubtful, necessary, obvious, certain, appropriate, able, willing, likely 등), 일반 동사(doubt, believe, predict, want, desire, permit, forbid, suggest, think, prefer 등), 부사(perhaps, fortunately, evidently, surprisingly, regrettably, hardly, strangely, presumably 등)에

1) 서법성(mood)은 양상성(modality)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서법은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이며, 양상은 어휘-의미 범주(lexico-semantic category)이다.(Huddleston, 1984:166)

의해 표현될 수 있다(Lyons, 1977; Palmer, 1986; Saeed, 1997).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로 양상 동사(modal verbs)로 인해 양상성이 드러난다. 통사적인 면에서 보면,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단순한 어휘구조를 보이지만,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범주의 폭이 넓은 만큼, 다양한 양상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양상 동사는 can, may, will, shall, must, could, might, would, should 등으로, 이들은 문장의 본동사 앞에 위치하며, 본동사가 표현하는 상태나 행동과 관련해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 의지 등을 표현하는 보조 동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화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가치, 규범 등과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발화된 명제에 대한 평가

내리는데 이때 이 명제가 실현될 가능성, 개연성 또는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양상 동사들을 선택한다.

2.2 선행연구

Leech(2004)는 양상 동사를 인식적 양상성(epistemic modality)과 근원적 양상성(root modality)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식적 양상성은 보다 논리 지향적이고 보편성을 바탕으로 진술의 진위에 관련하여 가능성의 제약을 다루는 것으로, 실제적 가능성(practical possibility)과 논리적 필요성(logical necessity)을 포함한다. 즉, 인식적 양상성은 화자가 발화한 명제가 지닌 진실성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화자의 판단 또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근원적 양상성은 비인식적 양상성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의 보편성에 존재하는 제약 또는 제약의 결핍을 표현하는 좀 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양상성의 형태로서 허가나 의무, 또는 이론적 가능성(theoretical possibility), 요구(requirement) 등이 포함된다. 즉, 근원적 양상성은 능력, 허가, 의지,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어에 대해 부여되는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 된다.

Leech(2004:85)는 will의 의미만을 분류하였는데, 그는 will이 앞으로의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인 예상(prediction) 또는 예측(predictability)과 화자의 의지와 관련하여 의도(intention), 자발(willingness), 주장 또는 고집(insistence) 그리고 미래 의미까지 5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류했다. 아래의 예문들은 순수한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 (1) The party will be at his house.
- (2) It will soon be New Year.

다음으로 예상 또는 예측의 의미를 포함한 예문들을 살펴보자.

- (3) That will be the service engineer.
- (4) You will get better after a sound sleep.
- (5) By now she'll be watching the movie.
- (6) He will have finished by now.
- (7) If it's made of wood, it will float.

화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예측'을 할 수 있다. 위의 예문(3)의 경우에 화자가 이미 서비스 기술자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거나, 예문(4)의 경우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후에는 상태가 좋아지므로, 상대방 또한 꼭 자면 곧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예문(5), (6) 같은 경우에 화자 자신이 직접 상황 속에 있지 않아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일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예측의 의미로 분류된다. 이러한 will의 의미는 과학적인 진술에도 적합한데, 이 경우 'Whenever x happens, it is predicable that y happens.'의 의미를 가지며, 예문(7)에 해당한다. 또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습관적 예측(habitual predictability)을 표현한다.

- (8) If a plane window breaks the cabin will rapidly decompress.

다음 will의 의미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의도(intention)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발(willingness)과 고집(insistence)의 중간 단계의 의지(intermediate volition)를 말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9) I'll go tomorrow.
- (10) You won't tell him about it
- (11) We'll join the club.

위의 예문처럼 1인칭 주어와 같이 쓰여서 예문(9)처럼 약속이나 예문(10)의 위협, 또는 예문(11)과 같이 단체의 결심을 의미한다. 이처럼 will이 화자의 의도를 보여줄 때는 당연히 주어는 인간이나 동물처럼 살아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인화된 주어를 사용한다. 아래 예문(12)에서 주어인 자동차는 의인화된 것으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 (12) The car won't start.

이번에는 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will의 자발(willingness) 의미를 살펴보자.

- (13) I'll check this letter for you, if you want.
- (14) Will you sent this letter for me, please?

위의 예문(13)에서, '네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가 들어감으로써 반드시 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로 보는 것보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럴 용의가 있다는 자발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14)의 경우처럼 2인칭 주어에 요청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는 청자의 자발 의지를 묻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시 또는 명령을 보다 완화하여 표현하는 부탁의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고집 또는 주장(insistence)의 경우를 보자.

- (15) I will stay here. I won't go anywhere!
- (16) She will go, no matter what you say.
- (17) Jane won't meet Bill.
- (18) My dad will have his own way.

예문(15)에서처럼 1인칭 주어의 사용은 주어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다.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 화자를 둘러싼 환경이 맘에 들지 않거나 본인의 행위를 타인이 반대하는 경우로 소리를 크게 하거나 몸짓이 수반되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의 경우는 화자가 주어의 의지에 짜증이 나 있는 상황으로 고집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통 강세(stress)를 받게 되는데, 축약형('ll)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Palmer(1974)의 경우는 will의 의미와 관련하여 4가지 구분을 두었다. 의지, 고집, 특징 그리고 추론으로 분류하였는데,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자. 그는 영어에 미래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will이 다른 양상 동사보다 시제 표시로서의 사용이 더 빈번하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의 예문과 같이 축약형으로 쓰이는 경우 강세가 오지 않고 그것은 의지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9) I'll be seeing him today.

이런 경우, will은 단순히 미래의 의미만을 갖는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의 경우는 '의지'가 포함된다.

- (20) My mom won't meet him.

단순미래와 의지 미래의 구분은 같은 의미를 지닌 수동태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Channel 6 will broadcast the news at 8 o'clock 예문처럼 단순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는 The news will be broadcast at 8 o'clock으로 의미의 변화 없이 수동태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예문(20)의 수동태형은 He won't be met by my mom으로 의지의 주체가 바뀌면서 의

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동태 변환이 가능하지 않다. 다음의 예문에서 보이는 강한 의지는 '고집'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21) I've asked her but she won't come.

Will은 이외에도 주어의 특정한 성향이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2) She'll listen to music, alone in her room, for hours.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과 관련된 의미는 의지를 포함하지만, 미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지 미래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문은 She listens to music, alone in her room, for hours처럼 현재 시제로 바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will에 강세를 더하게 되면 그러한 습성이 화자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위의 예문의 경우 even though she knows I don't like it의 의미가 추가될 수 있다.

Palmer는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 예를 들어 'The sun rises in the east'와 같은 예문에서 will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경우에 will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추론(inference)으로 분류했다.

(23) Wood floats on water and it's made of wood. So it will float on water.

이 외에도 will의 용법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Coates(1983:169)의 경우, 예측 가능성과 예언 그리고 의향, 의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Quirk et al.(1985:228)은 두 가지 즉 의지와 예언으로, Jespersen(1924)은 세 가지인 습관, 능력, 의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각각이 사용한 단어는 다르지만, 의도, 의향, 고집 등은 의지로, 습관, 예언 그리고 추론 등은 예측으로 크게 묶을 수 있다.

3. 관련성 이론과 발화의미의 추론과정

인지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관련성 이론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 과정에 '관련성(relevance)'이 개입한다고 본다. 관련성 이론은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을 관련성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사용하여, 좀 더 단순하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론들에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3.1 관련성의 정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프랑스 학자 Dan Sperber와 영국 학자 Deirdre Wilson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발화 내용의 의미 결정에 있어서 발화시의 맥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발화가 갖는 맥락과의 관련성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Grice(1975)의 고전 이론에서 제시한 대화 원칙과 네 가지 격률 대신 오직 하나의 원리 즉 관련성(relevance)이라는 단일 원리만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원리는 모든 발화가 청자에게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일으킨다. 즉 발화가 발생한 어떤 주어진 맥락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상호 인지 환경을 토대로 추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관련성 이론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Sperber와 Wilson(1986)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사 소통자들이 정보를 처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유일한 특질이 바로 관련성(relevance)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관련성이란 무엇인가? 관련성이란 두 개의 인자, 즉 인지적 또는 문맥적 효과(cognitive/contextual effects)와 처

리 노력(processing effort)의 함수로 볼 수 있다.

(24) Relevance = Effects / Costs

인지적 또는 문맥적 효과는 새로운 정보와 인지 시스템 내에 이미 설정된 기존의 정보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내용이 맥락에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보가 강화되거나 각각되는 것을 모두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자인 처리 노력은 처리된 어떤 새 정보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석을 산출하기 위하여 청자의 인지 시스템이 들여야 하는 노력이다(Huang, 2007).

인간의 인지는 효율적인 정보처리 장치이다. 그렇다면 정보처리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적은 처리 비용으로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어떤 정보는 구 정보(old information)로서 한 개인의 인지 시스템 내에 이미 들어 있다. 어떤 특별한 인지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그 구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면, 구 정보는 처리할 가치가 전혀 없다. 또 어떤 정보들은 신 정보로서 한 개인의 인지 시스템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신 정보들은 고립된 단편 정보들로 보통 어떤 효율성도 없으며 오히려 처리하는데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어떤 것은 신 정보이지만 구 정보와 연결되어 있다. 상호 연결된 이 신 정보와 구 정보의 내용 들은 추론과정을 통해 발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함께 전제(premises)로 사용될 때 더 많은 신 정보를 계속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구 전제와 신 전제가 결합하지 않는다면 도출할 수 없는 정보들이다. 이처럼 신 정보의 처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에 더해져 더욱 발전된 정보를 추가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관련성이 있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정보의 증식 효과가 크면 클수록 관련성도 커진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군가의 발화를 듣고 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수정하는 인지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 발화의 관련성은 크다.

이어서 Sperber와 Wilson(1986)은 맥락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효과를 세 가지의 주요 유형들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신 정보 또는 구 정보 각각이 아닌 모두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을 생성하는 것(contextual implication), 둘째는 기존의 가정이 신 정보의 추가로 인해 강화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기존의 가정이 부정되고 취소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에는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발화의 관련성은 더 적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어떤 보상을 기대할 때만 들이게 되는 것으로, 신 정보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구 정보와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만약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얻는 효과가 처리 노력보다 더 적다면 그 정보는 처리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2 관련성의 두 가지 원리

관련성이 가지는 두 가지 원리는 인지적 원리(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와 의사소통적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이다. Sperber와 Wilson(1986)에서는 관련성에 대한 의사소통적 원리만 제시되어 있는데, Speber와 Wilson(1995)에서는 인지적 원리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관련성을 정의하고 관련성의 정도는 맥락적 효과와 처리 노력의 함수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Sperber와 Wilson(1995)은 ‘인간의 인지는 관련성을 최대화하려는 쪽으로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관련성에 관한 인지적 원리(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를 제안한다. 결국, 관련성의 인지적 원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에 있어서 의사 소통자는 가능한 한 적은 처리 노력으로 가능한 많은 인지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Sperber와 Wilson(1995)은 이와 같은 인지적 원리는 우리의 인지 시스템이 진화해오면서 자동으로 당연히 갖게 되는 경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은 우리의 인지 시스템이 주어지는 자극 중 가장 관련성 있는 자극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

하도록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를 살펴보겠다. 관련성 이론의 또 다른 주요 가정은 의사소통의 추론 모형이다. 추론 모형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란 의도를 표현하고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화자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자신의 의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그러면 청자는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하여 그 의미를 추론한다. 관련성 이론에서 추론적 의사소통은 명시적-추론적 의사소통(ostensive-inferential communication)이라 불린다. 추론적 의사소통은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도(first-order informative intention) 외에도 의사소통적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로 부르는 고차적인 의도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추론적 의사소통은 명시적 자극(ostensive stimulus)을 포함하고, 이 자극은 청자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화자의 전달의미에 집중하게 만든다. 명시적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에게 이것이 처리할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Sperber와 Wilson은 화자가 이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이라 부르는 특정 수준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청자에게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25) Optimal relevance

An ostensive stimulus is optimally relevant to an audience iff:

- a. It is relevant enough to be worth the audience's processing effort;
- b. It is the most relevant one compatible with communicator's abilities and preferences.

최적의 관련성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Sperber와 Wilson(1995)의 관련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26)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Every ostensive stimulus conveys a presumption of its own optimal relevance.

모든 명시적 자극은 그 나름대로 최적의 관련성이라고 추정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3.3 발화의미의 추론

언어적 의사소통은 두 유형의 의사소통 과정, 즉 기호화 및 기호 해독에 기초한 것과 명시적 행위 및 추론에 기초한 두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perber와 Wilson(1986, 1995)에 따르면 기호화된 것에, 관련성 이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즉 명시적 내용(explicit content) 또는 외축(explicature)에 화용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관련성 이론에서 외축은 다섯 가지 영역 즉 중의성 해소, 지시체 해소, 충족, 자유로운 의미보충 그리고 임시적 개념 구성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각각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중의성 해소(disambiguation)는 어휘적 중의성을 말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잠재적 의미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한다. 예를 들어, John and Bill passed the port in the evening이라는 문장에서 port라는 어휘는 다의어로 harbor 또는 wine의 뜻을 가진다. 맥락에 의존하여 John and Bill passed the harbor in the evening이라는 외축이 선택된다. 지시체 결정(reference resolution)의 경우는 John told Bill that he wanted to date his sister와 같은 문장에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지시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호되는 해석은 he는 John이고 his는 Bill's이다. 충족(saturation)은 불완전한 논리 형태를 보이는 부분을 채우는 화용론적 과정이다. 예를 들어 Kim works too hard라는 명제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for what이라는 의미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Kim works too hard for a not terribly well-paid British university professor와 같이 맥락에 따라 채워질 수 있다. 자유로운 의미보충(free enrichment)이란 실제로는 채워야 할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축에서 개념적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John has a brain 같은 경우는 언어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화용론적으로 John has a scientific brain과

같이 자유롭게 보충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맥락상 필요한 구성요소를 외측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Everyone wore a new wool cardigan 같은 경우 양화사 everyone의 영역은 제한되어 명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Everyone at Mary's party wore a new cardigan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개념 구성(ad hoc concept construction)은 어휘적 개념을 화용론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즉 의미를 한정하거나 강화하는 방식 아니면 넓히거나 약화하는 방식 또는 양자를 결합하는 식의 조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happy, angry, depressed 등에 의해서 표현된 개념은 감정에 대해 다양한 종류, 정도, 속성들을 나타내는 보다 상세한 많은 하위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ohn is depressed라는 문장은 맥락에 따라 약간 침울하다거나, 매우 침울하다거나, 자포자기할 정도로 침울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²⁾

반면 함축은 오로지 화용론적 추론을 통해서만 유도 가능한 의사소통된 가정들로 정의되며, 외측이 기호의 해독과 추론에 관련된다면, 함축은 기호의 해독작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추론에만 관련한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은 명시 의미와 함축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적절한 맥락의 선택이라는 추론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함축의 추론뿐 아니라 외측의 추론 또한 발화시 알맞은 맥락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특정 해석을 선택함으로써 불완전한 논리 형태를 완성하게 된다.

4. 관련성 이론에 의한 *will/would*의 의미분석

2) 관련성 이론에서는 화자의 발화가 담당하는 화행이나 그 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정보는 상위 외측(higher-level explicature)을 도출하는 과정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정 언어 표현이나 말투, 어조 같은 준 언어적 특징이 담고 있는 절차 의미(procedural meaning)를 파악하여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과정은 모두 함축이 아닌 외측(explicature)의 도출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정혜인, 이상철, 2017: 6)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will은 다양한 양상적인 의미 용법을 가지고 있다. Will을 양상 동사로 바라보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will이 사용되는 수많은 맥락의미를 will이 가진 기본적 의미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사실, will은 고대영어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다. Will의 기원이 되는 willan은 원래 일반 동사로서, '원하다(desire)'와 '바라다(wish)'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차츰 그 의미가 탈색(bleaching)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와 관련된 양상성을 가진 양상 동사로 기능하게 되었다. Will이 가진 '미래'의 속성은 비-사실성(non-factuality)을 의미한다. 사실적 발화는 단지 현재의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will의 사용은 주관성(subjectivity)을 담게 된다. 그럼 발화 맥락에 따라 '미래'의 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 (27) a. I will be twenty next birthday.
- b. It'll rain tomorrow.

위의 예문에서 will은 '단순미래'의 속성을 보여준다. 화자나 주어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Will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하고, 미래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서 대화 참여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will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각 대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파생의미로 변화되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8) A: Mary, I want you to marry me.
- B: I will.

위의 예문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상대방의 말에 Mary는 I will이라고 대답한다. Will이 가진 '미래'의 속성을 통해서 생각할 때, 주어진 화자가 미래에 그 일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자발적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예문들의

발화맥락의미도 생각해보자.

- (29) a. Your parents will help you if you ask them.
- b. I will bring him the card tomorrow. I promise.
- c. She will talk to him, nobody can stop her.
- d. If you don't apologize to me, I will go out.

관련성 이론에서 발화맥락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우리의 인지가 '최적의 관련성'을 찾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위의 예문들에서 will의 의미 또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문(29a)에서 will의 의미는 if you ask them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주어의 '자발적 의지'의 의미이다. 물론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의 의지에 대한 자신감은 주어가 I일 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문(29b)와 같은 경우는 I promise라는 말을 덧붙임과 동시에,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므로, 화자의 '명백한 의지 또는 의도'를 보여준다. 미래에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이라 의지의 강도에 따라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예문(29d)와 같은 경우 if you don't apologize to me 같은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이 일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강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로 인해 '고집'의 의미로 해석된다.

- (30) a. Will you listen to me?
- b. Will you do me a favor?

위의 예문과 같이 주어가 2인칭의 경우 will과 같이 사용되면, 의문문의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화자가 상대방의 의지나 의도에 대해서 당연히 덜 확신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단정하는 문장의 구조를 취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 화자의 자발적 의사를 묻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상대방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부탁'이나 '명령' 혹은 '위협'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 (31) a. Sarah will be in her office.
- b. That will be my brother.
- c. Wild animals will attack a man when hungry.
- d. You will regret it when you are older.
- e. By now she will be watching TV.

미래의 속성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어나 화자의 의도, 의지 등의 의미가 담길 수 있고, 또한 현재 상황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즉 발화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추론, 예언'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31a)의 경우 Sarah의 평소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사무실에 있을 것(I confidently predict that Sarah ~)이라는 '추측'의 의미가 발생한다. 예문(31b)의 경우, 마찬가지로 친구가 집에 놀러 와 있는 상황에서 위층 천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이에 대해 화자는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분명 내 동생이야'라는 의미로 발화할 수 있다. 예문(31c)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에 근거해서 야생 동물의 습성이 그러하므로, '예측'이 의미가 발생하며, 예문(31d)의 예문에서는, 몸에 문신을 새기려는 아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발화라고 가정한다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빈번하므로 '너도 또한 그럴 것이다'라는 '예언'의 의미가 발생한다. 마지막 예문의 경우 평소에 그녀의 일상을 통해서 볼 때 지금쯤이면 TV를 볼 것이라는 '습관'의 의미로 파생된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32) a. If it's made of wood, it will float.
- b. This jar will hold a kilo.
- c. The back seat will hold three passengers.
- d. Cars will use electricity as the power source.

위의 예문의 공통점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주어가 살아있는 대상이 아닐 경우 주어나 화자의 자발적 의지나 의도, 또는 예측이나 추론 등의 발화미해석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주어의 '성향'이나 '특성'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의 의미를 발생시킨다.

다음은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의 양상성에 대해 살펴보자. Will이 ‘미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would는 이에 더해 ‘과거’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서 양상성에 차이가 생긴다. 과거의 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의지나 다짐 등의 반복은 결국 현재의 시간에 과거의 반복적인 또는 습관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 게다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미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와 관련한 아쉬움이나 후회 등을 만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실과는 반대되는 가정의 의미도 갖게 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33) a. The policeman told me that she would be free soon.
 b. He said he would go tomorrow.

Would는 미래에 더해 과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의 시점에서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미래의 일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일은 사실이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34) a. We would visit Grandma every morning up at the farm.
 b. After dinner, she would drink some tea.
 c. When his parents were busy, his grandparents would take care of him.
 d. He knew it was wrong, but he wouldn't change it.
 e. He was ver poor, but she would marry him.

위의 예문들 예문(34a, b, c)에서 would는 각 예문에서 every morning, after dinner, 그리고 When his parent~라는 구절을 토대로 이후의 시간에 그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과거의 습관’의 의미로 파생된다. 또 어떠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문(34d, e)처럼 주어의 ‘의지’ 또는 ‘고집’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에서도 맥락에 따른 의미를 추론해보자.

- (35)
 a. If he had seen the advertisement, he would have applied for the job.
 b. We would never have met if you hadn't invited.
 c. I wish you would not have drink so much.
 d. I wish you would finish it.
 e. I'd love some tea.
 f. Oh, I would that I could change his mind.
 g. It would take too long.

위의 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if의 사용이다. 조건절의 사용은 과거의 속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던 혹은 일어나기를 바랐던 ‘가정’의 의미를 만들고, would의 의미를 예문(35c, d, e)의 경우처럼 ‘바램’이나 예문(35f)에서처럼 ‘후회’ 등의 의미로 확장한다. 예문(35g)와 같은 예문의 경우 if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if가 함축되어 해석된다.

- (36) a. Would you please help me?
 b. Would somebody please help me?
 c. Would you mind opening this door?
 d. Would you like some coffee?

위와 같이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인 의문문의 경우 앞의 will의 쓰임에서 는 주어의 ‘자발적 의지’를 묻고 있으나 주어의 의지와 다르다면 지시나 명령 혹은 협박의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다. 그만큼 직접적이고 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ould의 사용은 화자가 과거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상 거리가 멀어지면서 현실의 조건이나 상태와도 먼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간접적이고 확실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지를 묻고 있으므로 정중하고 공손한 ‘제안’이나 ‘부탁’의 의미로 확장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will을 미래와 관련된 양상성을 가진 양상 동사로 분류하고, Sperber와 Wilson의 관련성 이론을 통해 will의 다양한 양상성을 설명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양상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양상성이 발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또는 심리적인 태도이며, 영어에서는 주로 양상 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양상 동사 will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Leech와 Palmer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 미결정문제의 해결을 맥락을 통한 화용론적 추론으로 설명한 관련성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관련성의 정의를 설명한 후 관련성 이론의 두 가지 원리 즉 인지적 원리와 의사소통적 원리를 소개하고 발화 맥락에서 적절한 맥락이 선택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관련성 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양상 동사 will/would의 의미가 발화 맥락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양상 동사 will의 선행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전에 정의된 will의 의미들을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여러 고유의 의미를 지닌 다의어로 바라보거나, 또는 몇몇 기본적인 의미들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적인 의미들로 분류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will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유의 의미를 상실한 단지 '미래'의 속성을 가진 단어이며, 이 미래의 속성에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이 파생되며, 이 과정은 관련성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즉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이해하는 과정은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 맥락을 선택하는 추론의 과정이며 인간의 인지는 자동으로 관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발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대화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Abstract]

The Relevance-Theoretic analysis to the Modality of *Will/Would*

Heo, Kwangmi · Lee, Sangcheol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utterance is mostly made through contextual inference. Sperber and Wilson (1986/1995), through the 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 theory, have explained that 'human cognition tends to be geared to the maximization of relevance'.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relevance' is the communicative principle, which grasps the explicit and the implied meaning.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process of inference through relevance theory.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some examples in which *Will* is derived in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various context. *Will* is used as a representative future tense expression, but it is also a modal verb that conveys the subjective or psychological attitude of various speakers through the attribute of this 'future'. After all, it is very important to grasp the proper meaning of modal verb in utterance meaning inference.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modality and introduces the previous studies of the meaning of *Will*. In Chapter 3, Sperber & Wilson's principles of relevance theory and the inference process are also examined. Next, Chapter 4 shows the examples of the meaning derivation of *Will* and *Would* in relevance theory, and this study concludes in Chapter 5.

Key words : Relevance Theory, Utterance Context Meaning, 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Will/Would*, Modality, Modal Verb

참고문헌

□ 단행본

- Coates, J.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Groom Helm, 1983, pp. 1-169.
- Huang, Y. 2007.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96.
- Huddleston, R.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483.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pp. 313-321.
- Leech, G. N. 2004. *Meaning and the English verb*(3rd ed.). London: Longman. pp. 72-106.
- Lyons, John. 1977. *Semantics 2* volu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87-849.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pp. 136-157.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21.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pp. 93-172.
- Saeed, J.I. 1997. *Semantics*. Blackwell Publishers. pp. 1-368.
- Sperber, D. and Wilson, D. 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pp. 1-254.
- Stockwell, Robert P. 1977.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c1977. pp 1-217.

□ 논문 및 기타 자료

- 정혜인, & 이상철. 2017. 「공손성과 관련성이론」. 『국제언어문학』, 38, 6면.
- Grice, H.P. 1975. *Method in Philosophical Psychology: From the Banal to the Bizarre*,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975), pp. 23-53.
- Halliday, M.A.K. 1970. *Functional Diversity in Language as seen from a Consideration of Modality and Mood in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Philosophy, 6, pp. 322-61.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 접수되어 12월 11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